

초현실주의 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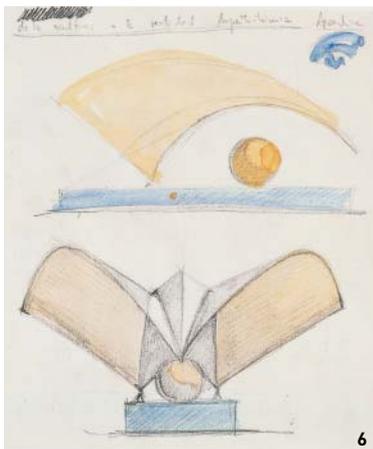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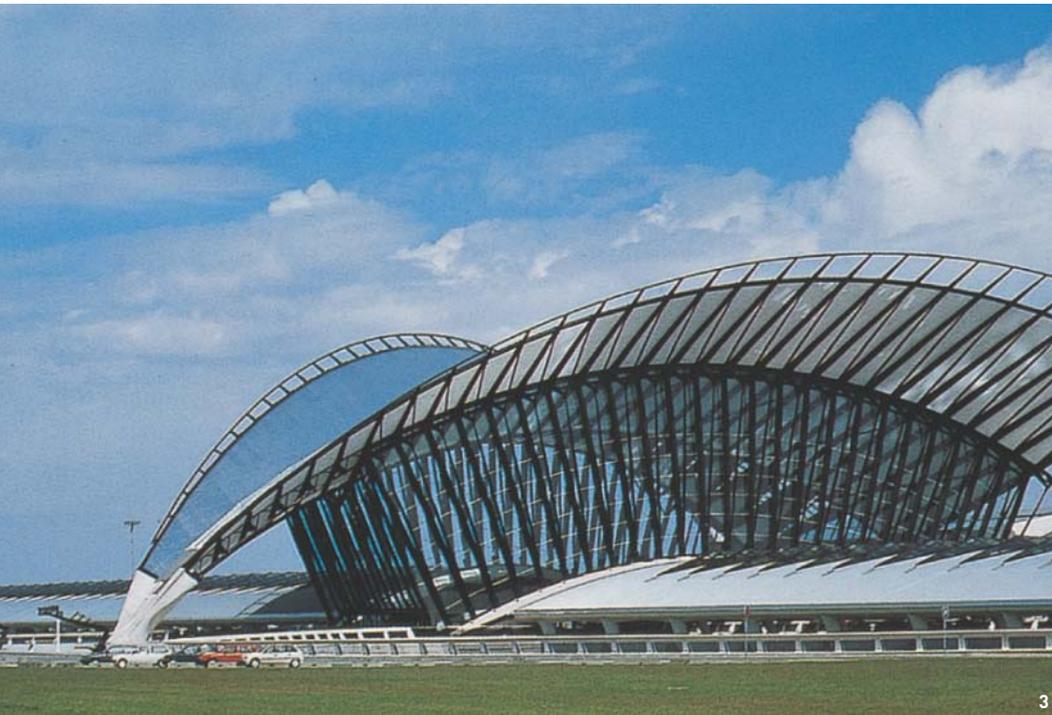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Santiago Calatrava)

바르셀로나 몬주의 통신탑을 비롯해 기하학적인 형태의 다리나 건축물로 유명한 초현실주의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공학자이자 건축가였던 그의 역동적인 작품 세계를 들여다본다. 번역 우영선 에디터 김수진 자료 제공 마로니에북스(www.maroniebooks.com)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을 만들고자 할 때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주체가 건축가인지 공학자인지에 대한 논쟁은 19세기 중엽부터 공학자와 건축가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 논쟁은 공학자이자 건축가였던 칼라트라바의 작품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그 해답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스페인 건축가는 자신이 받은 교육에 기초하여 구스타프 에펠의 작품을 시발점으로 한 창의적인 사조에 합류한다.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스페인 건축가 에두아르도 토로야와 펠릭스 칸델라, 이탈리아 건축가 피에르 루이지 네르비와 리카르도 모란디, 영국 건축가 오브 아랍, 독일 건축가 프라이 오토의 돌보이는 작품들이 이 사조를 빛냈다. 칼라트라바 건축의 주된 특성은 하이테크가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을 일으키는 유기적 형태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개인적인 해석을 가했다. 혁신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실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고 조각이나, 수채화, 드로잉으로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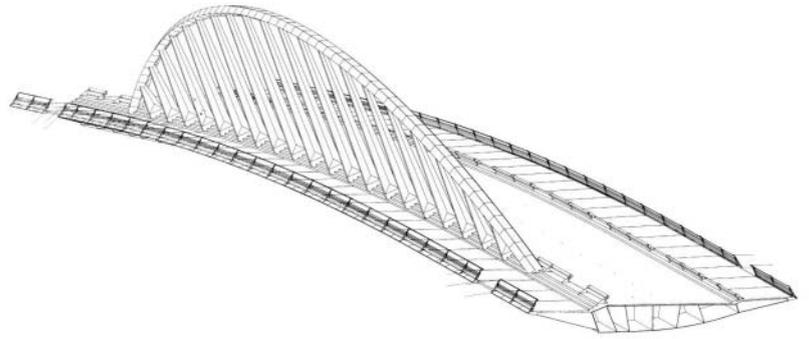
1 쿠웨이트(Kuwait) 빌딩. 2 뉴욕에 있는 세인트 존 디바인 교회(St. John the Divine)의 남쪽 측면. 3 론 알프스 사틀라스(Rhone Alpes Satolas) T6V역, 1989-1994. 이 혁신적인 형태의 건축물은 강력한 역동성을 일깨우는 현대 기술의 산물이다. 4 알라밀로(Alamillo) 다리, 1992년. 스페인 세비에. 5 알라메다(Alameda) 지하철역 다리, 1991-1996 스페인. 발렌시아. 6 론 알프스 사틀라스 T6V역의 수채화 디자인.

* 전 세계 유명 건축물을 소개하고 있는(언더스탠딩 아키텍처(Understanding Architecture)), 1부에서는 공간의 개념, 비율에 대한 연구, 영토계획, 도시계획, 건물 타입과 스타일 등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을 분석하고 있고, 2부에서는 당대의 유명했던 건축가들과 삶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미 영어와 이탈리아 그 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간될 예정인 <언더스탠딩 아키텍처>는 마로니에 북스에서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참고로 이 글은 영어본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계 작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비상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그는 초기의 평면에서 결코 선회하는 법이 없다.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통신탑(Montjuich Telecommunications Tower/1991)이 그의 이러한 성향을 잘 드러내는 적절한 사례이다. 이 탑은 마치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화살처럼 위를 향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칼라트라바의 스케치, 즉 무언가를 주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는 인물 스케치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실 그의 주된 관심은 발렌시아의 알라메다 지하철역 가교(Alameda Subway Station Bridge)와 같은 사례로, 특정한 형태에 내재된 다이내믹즘이다. 이 다리는 마치 팽팽하게 당긴 활처럼 휘어 있다.

삶과 작품 현대 건축과 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195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1968년에서 1969년까지 발렌시아 예술 학교에서 공부했고, 1975년



취리히로 이주한 후에는 유연한 구조물, 특히 트러스(교량이나 지붕처럼 넓은 공간에 걸치는 구조물 형식)의 작용에 관한 박사논문을 발표하고 1981년 그곳의 공과 대학을 졸업했다. 탄탄한 기계공학적 지식을 겸비한 그는 구조 자체가 설계의 결정적인 요소인 작품들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 요소는 그가 여러 차례 강조했다듯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공간을 향해 역동적으로 분출하는 형태를 말한다. 공간을 향해 돌출하는 형태에 대한 그의 관심은 구조와 형태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려 노력하는 일관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의 관심은 종종 주제넘게도 조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지향하며 연구하는 것이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그가 왜 1991년 뉴욕의 주요 랜드마크 중 하나인 사도 요한 성당 개축 현장 설계에 참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칼라트라바가 제시한 안은 고딕 양식으로 회귀한 트랜셉트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트랜셉트의 교차부와 중앙의 네이브 위 165피트 지점에 매달 일종의 생물권(Biosphere), 즉 성서의 낙원을 암시하는 듯한 지붕의 매달린 정원이다. 칼라트라바는 2004년 2월 뉴욕 시의 새로운 세계무역센터 교통 허브(Transportation hub)를 설계하면서 그만의 높이 나는 듯한 평면을 선보였다. ☺